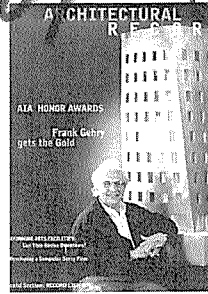


- Architectural Record
- The Architectural Review
- Domus
- Architecture
- 建築文化
- a+u
- 新建築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5월호

이번 호는 건축, 인테리어, 도시디자인, 건축회사 그리고 25년상 부문 등의 AIA 수상작들을 소개하였다. Frank



Gehry 특집으로 그의 건축활동 40년에 걸친 작품들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빌바오 구겐하임이 주는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이번 호 건물타입 연구의 주제는 공연장으로 대규모 음악당에서부터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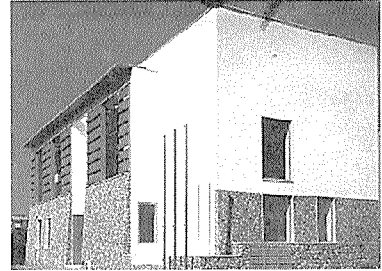
■ Frank Gehry

Gehry 개인의 작품활동에 있어, 그리고 건축계 전체에 있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거둔 성공의 의미는 대중에게 건축이 단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장관으로서 실제적인 인공물의 의미를 보여 주었다는데 있다. Louis I. Kahn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인정받는 Gehry의 작품들은 구상적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건축을 추구했던 Kahn과 대비된다. 르 꼬르뷔제의 융상성당과 마찬가지로 빌바오 구겐하임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표현주의적이며, 구조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티타늄 판이 부착되는 프레임과 구조물 판의 형태에 따라서 휘어진다는 점에서 구조가 형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 과정은 매우 직관적인 반면에 과학적인 렌더링 기술인 CATIA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항공기설계용 소프트웨어인 이것에 의해서 바르셀로나 Vila Olimpica의 물고기 형태를 실현시킬 수 있었으며, 이 작품을 시작으로 곡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CATIA에 의한 데이터는 BOCAD라는 소프트웨어에 넘겨지

고 이것에 의해 프레임과 부수적인 스틸 구조가 짜여진다. 그의 작업방식은 매우 기능적인 결정들로부터 출발한다.

■ 근작소개

▶ Juan Navarro Baldeweg의 스페인 마노르카 Mahon 법원



지중해 섬 마노르카의 수도인 Mahon에 지어진 이 법원은 섬의 역사와 작은 소도시의 공공생활의 친근한 스케일을 반영한다. Navarro는 이 디자인을 통해서 건설되고 있는 신시가지와 개발되지 않은 구도시를 매개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적인 정체성을 힘있는 추상적 형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개구부가 거의 없는 길고 하얀 건물의 측면은 바람에 대한 저항을 줄인 농기주택과 닮아있다. 일층부분은 자갈로 마감되어 지방의 풍색을 드러낸다. 서측 파사드 부분은 이층집 주택의 파사드를 본뜬으로서 주택을 공공의 스케일로 확대한 듯이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 Oosterhuis Associates & Nox의 Water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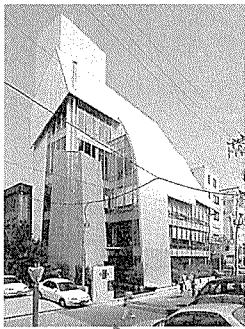
이 파빌리온은 네델란드가 물과 갖는 복

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최근작으로, 그 의미는 그것이 놓인 사이트에 있다. 1953년의 홍수로 인해 이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물의 자연적인 순환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서 네델란드 정부가 두 젊은 건축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두 개의 파빌리온은 모두 컴퓨터로 설계된 삼차원 구조물로서 어떠한 단면도 서로 같지 않은 곡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Ricci & Spaini의 이태리 Francavilla al Mare, Museo Michetti를 소개하였다.

■ 케이스 스터디 - 공연장

▶ 손학식의 서울 OPUS



최대한의 용적을 요구하는 건축주의 요구에 맞춰 사선제한 선에 의해 메스가 결정되었다. 계단식으로 절단되는 대신에 단일체로 보이도록 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에 의해 분절되어 있는 건물의 기능들을 하나의 틀 안에 담고 있다. 알루미늄 판을 덧대므로써, 지붕과 벽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강한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다. 좁은 도시적인 콘텍스트에서 어떻게 콘서트홀을 끼워넣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건축가는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하여 지어야되는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하에 두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하층에 위치시킴으로써 방음효과 및 거리의 불필요한 소음차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 ▶ Arquitectonica의 프랑스 Dijon 음악당 ▶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North Texas 대학 Murchison Center ▶ Itsuko Hasegawa의 니가타현 문화회관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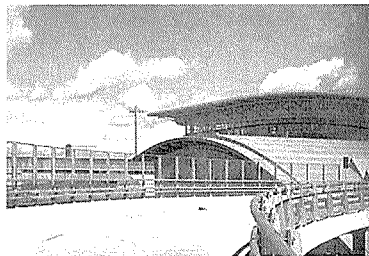
도시의 교통 기반 시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본호는 국가 정체성을 잘 살린 노르웨이의 새로운 공



향과 런던의 지하철 Jubilee 라인 4개역 디자인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Randy Brown의 네브라스카 오피스 디자인, 시드니 하버다리에 근처에 있는 Lippman Associates의 체육센터, Niall McLaughlin의 런던 주택의 인테리어 등을 다루었다.

■ 교통시설 특집

▶ Aviaplan의 오슬로 Gardermoen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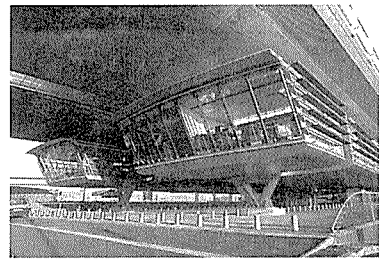


정부는 공항이 노르웨이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되기를 요구하였고, 디자이너는 하이테크적인 공항과 노르웨이적 특성의 실례를 만들어 내었다. 자연에 친숙하고, 개방적이면서 평등한 사회와 지역적인 자원의 사용이 새로운 공항에 적용될 특징적 개념이다. 중앙터미널은 매우 단순한 구성이다. 북쪽의 유리벽쪽으로 높이 향한 지붕을 지닌 거대한 홀의 지상층에서 도착하며, 그 위에 떠있는 레벨에서 출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는 법률에 의해 내부 도처에 목재

가 사용되었다.

▶ 런던의 지하철 Jubilee 라인 확장 지하철 Jubilee 라인 확장은 런던의 가장 중요한 교통기반 프로젝트이다. 11개의 새롭게 지어질 역은 도시의 공공교통을 재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지어진 역 4개- Chris Wilkinson Architects의 Stratford Station, van Heyningen and Howard Architects의 Westham Station, John McAslan & Partners의 Canning Town Station, Alsop & St rmer의 North Greenwich, Underground Station를 소개하였다.

▶ Odile Decq & Benoit Cornette의 프랑스 Nanterre 도로 통제 센터



이 건물은 독립되어 있는 오브제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도로의 연장으로 보인다. 고가도로의 두 지지체 사이에 매달려있는 이 구조물은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두 개의 단면으로 나누어져서, 차량은 땅위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위에 지나다니도록 구성되었다. 역동성과 가벼움의 강조는 움직이는 물체의 은유로서 강조되었으며, 공업 재료의 사용과 하이테크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그 밖에 ▶Lifschutz Davidson의 런던 Footbridge ▶Arup Associates with Rococo Design Partners의 홍콩 중앙역 ▶BRT Architekten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역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Randy Brown의 네브라스카 오피스 디자인은 다소 거친 듯이 보이지만 공간은 매우 조심스럽게 조직되어 있다. 리셉션 공간, 작업실, 개인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되었고, 조립식의 금속제 창고안에 무정형의 내부공간을 끼워넣은 형태이며, 볼룸들은 다양한 투명도를 지닌 부분들로 나뉘어 떠있다. 연결은 강력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Brown의 건축미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계단에서 발판은 난간의 세로보와 맞닿아 있으며, 이 세로보는 다시 금속재의 난간을 지지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적인 인접지구의 스케일에 맞춰 조정되어 있는, 시드니 하버 다리 근처에 위치한 Lippman Associates의 체육센터, ▶빛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보이는 Niall McLaughlin의 런던 주택의 인테리어가 다루어졌다.

Domus

1999년 4월호

새로운 유목주의 (New Nomadism)가 이번 호의 주된 테마로서 이동가능한 주택에서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재택근무자를 위한 실험적 주택 등을 선보였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해 온 Airstream사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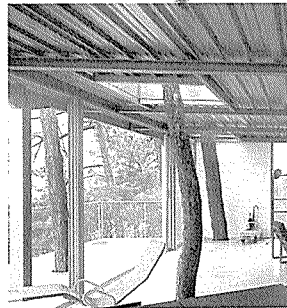
▶ Vincent Guallart의 디지털인을 위한 Scape House



미래의 이동가능한 주택으로서 유럽지형

어느곳엔가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되었다. 생태적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막안에 어떠한 도시적 행위들을 옮겨올 수 있다. 막안의 방들은 가구처럼 구입이 가능하다. 디지털인은 생활의 28%를 도시의 또 다른 작은 주거에서 보내고 나머지 72%를 근교의 이 Scape House에서 지낸다. 즉 주 5일을 재택근무하고 이틀을 세계 어느 도시에든지 업무를 보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 Anne Lacaton, Jean Philippe Vassal의 프랑스 보르도 주말주택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두 건축가는 과거의 건축가들이 바라던 소원인 나무들 안의 집을 실현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던 나무가 집을 관통하고 있으며, 바람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무의 띠가 나무를 플렉시 글라스의 구멍에 고정시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나무들이 집안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숲 안에 어떠한 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거슬리는 것이 없다. 단지 집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져 있으며, 대지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Collins의 호주 Bombala 소재 주말주택

이 집의 기획은 세계화와 새로운 유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획자는 런던과 시드니에 있고 건축주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 캐드와 인터넷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사이트가 선정되었다. Bombala지역은 거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UFO와 같은 자금지중적인 집이 필요시되었다. 집의 디자인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있는 경사진 좁은 창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경사진 창에 의해서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외관을 가진다. 땅에 대해 무관계적으로 떠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전통가옥의 영향이며, 비정상적인 비례와 대지로부터의 분리는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밖에 ▶ Eduard François의 프랑스 Jupilles 소재 주말주택 ▶ Pugh + Scarpa의 캘리포니아 이동가능한 트레일링 센터 ▶ 낮은 항구를 도시화하는 Bolles+Wilson의 로테르담 Kop van Zuid 프로젝트 ▶ Ben van Berkel의 네델란드 뫼비우스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산업 디자인

▶ LOT/EK Architecture의 주거의 새로운 차원을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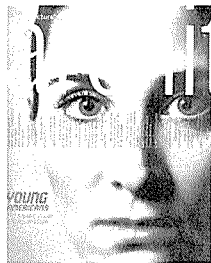
생산되고 버려지는 순환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세계의 다양한 단편들을 내부로 끌어들었다. 냉장고, 신문지 보관함, 트럭 컨테이너, 스틸 비상계단 등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짐으로써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건축가들은 디자인의 적절성에 의문을 보이는 한편, 혼돈과 도시적인 순간을 잡아내려고 한다. 완전한 형태를 피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반미학으로 부르면서,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기능적, 문화적 미적 관념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며, 그것의 결과로서 유연하며 유동적이고, 밀착된 혼합물을 만들어낸다.

그 밖에 ▶"의식적으로 단순한 디자인-Consciously Simple Design"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선보인 80년대 이래의 베를린 아방가르드를 반영하는 독일 가구디자인 ▶ 캠핑카 디자인 - 현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유목주의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Mobil Home" (특히 Airstream 사의 캠핑카는 미국문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 Vitra사의 접이일자 디자인 ▶ Mari, Sottsass의 유리 디자인 등이 다루어졌다.

Architecture

1999년 5월호

미국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세대의 가치관과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조명



하면서, 건축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다루었다. 개성적인 사고방식과 건축 각계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봄으로써 스타건축가 일편에서 벗어나, 90년대 건축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조립식건물을 다루었다.

■ 미국의 젊은 건축가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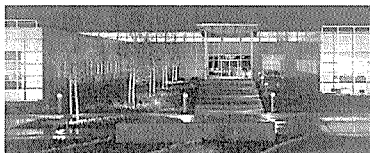
25~35세 사이의 이들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다. 30년간의 중요사건과 그전 세대와의 비교와 함께,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의 일과와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NBBJ Associates에서 근무하는 33세의 Timothy Johnson과 Antoine Predock Architect의 Associate로 일하는 Kira Sowanick의 건축관, 그리고 현재 그녀가 진행하고 있는 Tacoma Art Museum등을 다루었다.

▶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Todd Fouser(35세), Chris Otterbine(30세), Reuben Jorsling(34세)로 구성된 젊은 디자인 그룹 FACE는 건축가를 위한 가구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실물 크기의 시공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며, 디자인과 시공을 직접 수행한다. 디자인과정을 일련의

사진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구조를 실험하기 위한 1/4 스케일의 모형제작, 재단 작업, 현장 설치를 통해 레스토랑의 야외 파빌리온을 완성하였다.



■ Prefab Construction



캘리포니아 Livermore 소재 McGrath Rentcorp 본사 CAD시스템 등으로 인해 기존의 박스형 태보다 더 복잡한 형태가 가능해진 공장 생산 건축은 주거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의 공공시설에서부터 사무실, 호텔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프리패브 건축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컴퓨터화된 재단 시스템에 의해서 치수의 변형이 자유로워졌으며, 다양한 부재의 절단이 가능해졌다. 재료의 개발 또한 기술의 진보에 일조를 했다. 콘크리트에 스틸 섬유를 혼합하여 가공함으로써, 150mm의 패널에 110mm 단열재를 넣고도 건축법을 만족시킬만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RMW Architecture+design의 Ted Mahl은 "박스 밖에서" 사고를 한다. 12ft×60ft그리드 모듈을 우선 정해놓고, 4개의 익랑부를 만들과 마당, 갤러리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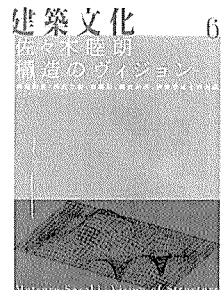
■ 기타

▶ 북 아메리카에서 20년동안 사라졌던 자연친화적인 리놀륨의 재사용 ▶ 업그레이드된 AutoCad 2000에 대한 기존버전과의 비교 ▶ 캘리포니아 소재, 거의 백년이 다 되가는 군사용 창고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建築文化

1999년 6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구조 설계사 사사키 무츠로가 참여한 작품들을 소개한 「사사키 무츠로 - 구조



의 비전」이 게재되었다. 사사키 무츠로의 글과 함께 그가 구조설계에 참여한 작품들이 건축가들과의 대담과 함께 다루어졌다. 그와 함께 작업한 건축가들은 세지마 카즈요, 니시자와 류에, 사이토 요타카, 난바 카즈히코, 이토 도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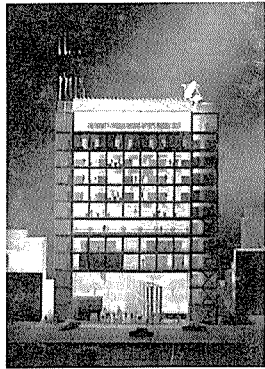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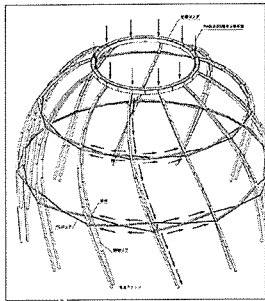
■ 특집: 구조의 비전 - 사사키 무츠로(佐佐木 睦朗)

▶ 현대건축과 「구조계획」

현대의 구조기술은 컴퓨터에 의한 해석 기술을 시작으로 고도로 발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성숙한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 자체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건축표현의 테마가 될 수는 없다. 기술지상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구조는 보다 소프트한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기술적으로는 고도화되나, 그것에 의해 건축표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구조에 대한 컨셉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때는 단순히 합리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구조는 그 뿌리가 되는 새로운 미학이나 논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 사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근대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구조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근대 이후 복잡한 사회상황과 더불어 일어난 전문분화에 의해 건축가와 구조가의 분화가 생겨났다. 각자의 분야가 분화

64 판



하여 고도로 발전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각 분야간의 상호이해와 가치관의 공유에 의한 공동작업을 통하여 다시 전체를 통합하는 장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때 한층 중요한 일이다. 이 공동작업의 요지에 위치하여 시적인 건축의 이미지와 현실의 구조 시스템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계획」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구조계획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선행하여 행해지는 구조계획은 창조적인 작업으로, 구조설계의 중추가 된다. 구조계획의 주요 목적은 사람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나 공간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건축기능과 함께, 구조기능, 시공시의 경제성과 공법, 조형적·미적 요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와 종합적인 공통의 목표와 컨셉과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구조계획의 개념들에 대해 '구조계획과 예술', '구조계획과 역사', '구조계획과 자연', '그 외의 컨텍스트'라는 제목으로 상술하고 있다.

▶건축가와의 대화

구조가인 필자가 그가 함께 작업했던 건축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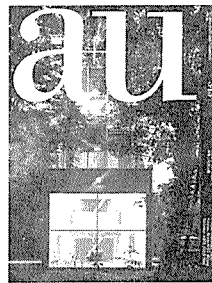
작업한 건축가들은 세지마 카즈요, 니시자와 류에, 사이토 요타카, 난바 카즈히코, 이토 토모등으로 각 작품에 대하여 당시 고려하였던 주요 개념들과 구조 계획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구조계획에서 건축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에 대한 소개를 건축가와의 대화의 형식으로 꾸며진 듯하다. 소개된 작품들은 22개로 80년대 행해진 몇 작품을 제외하곤 모두 90년대 후반의 최신작품들이다.

이, 밖에 연재물로 ▶「알바 알토 - 행복한 건축가」최종회와 ▶격월 연재인 「현대건축의 컬트그래피」최종회, ▶게임의 규칙 mvrdiv論이 게재되었다.

a+u

1999년 6월

이번 호의 특집은 「주택」이다. 도미니크 페로, 알바로 시자, 에릭 구즈나르, 요크 레팽 등 11명의 작가의 12



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는 테렌스 라일리의 "The Un-Private House"가 게재되었다. 그 외에 제지카 레이블의 전시회 리포트 2편과 연재 「현세의 시점제 5편 - "뉴욕시티"- 더 큰 영광을 향하여」가 게재되었다.

■특집: 주택

▶에세이: "The Un-Private House", 테렌스 라일리

여기에 게재된 에세이는 금년 7월부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되는 「The Un-Private House」전(1999. 7. 1 - 1999. 10. 5)의 소개문으로, 저자 테렌스 라일리는 이 미술관의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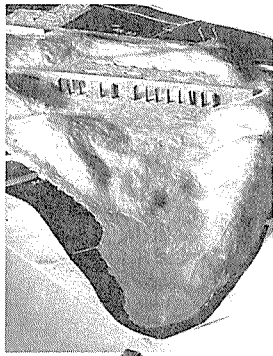
and Design 부문의 치프 큐레이터이다. 「The Un-Private House」전에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프라이비트 하우스가 건축사(建築史)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포함하면서 결국 프라이비트 하우스가 건축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있다. OMA의 보르도 저택을 시작으로 헤르조그 앤 더 무론의 크레믈리히 저택 등, 새로운 프라이비트 하우스의 존재 방법을 제안하는 작품들을 사진, 도면, 모형에 의해 소개하고 있다.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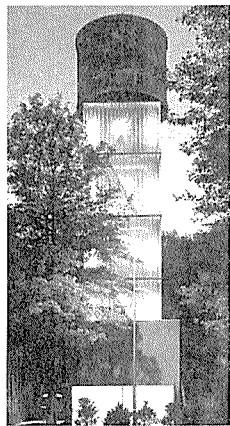
소개된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도미니크 페로 - 빌라 생 카스트, ▶에릭 구즈나르 - 사르조 근교의 주택, ▶발렌틴 버스 & 안드레아 데플레아즈 - 윌리만 레처 저택, ▶요크 레팽 - 워터 타워, ▶WoHa 디자인 - 에메랄드 힐 로드의 테라스 하우스, ▶토트 윌리엄스 & 빌리치엔 - 롱아일랜드 하우스, ▶토마스 헤르조그 - 파더본 근교의 내과의 주택,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 - B 저택, ▶안드라데 모레틴 - 달레산드로 하우스, ▶마인라드 모르거 & 하인리히 데겔로 - 도넛하의 주택, 3가족의 아파트먼트,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 - 비에이라 드 카스트로 저택 등이다. 각 작품은 주택이 세워진 국가 및 주변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의 개성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혹은 지역의 컨텍스트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작품들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개된 몇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미니크 페로의 빌라 생 카스트: 프랑스 노르망디의 주택가에 세워진 이 주택은 건축가의 자택이다. 주변의 다른 필지보다 비교적 넓은 면적의 필지에 주택의 대부분이 땅에 묻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가는 건축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을 랜스케이프를 보고, 건물을 세우는 것과 없애는 것, 원초의 주거 형태인 동굴과 같은 주거에서의 삶으로의 회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요크 레팽의 워터 타워: 벨기에 브라스



샤트의 구장원영지에 설치되었던 급수탑은 1937년까지 이용되었다. 그 후 1950년 시가 장원영지를 매입했을 때도 이 급수탑은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시는 이것을 파괴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주택은 이 급수탑의 골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완성되었다. 외관은 본래 급수탑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구성되었으며, 이 급수탑이 지나는 역사적 의미와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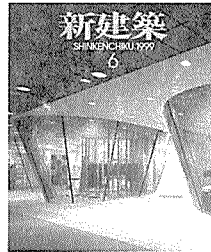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의 비에이라 드 카스트로 저택: 이 저택은 기존의 빌라 노바 데 파울리쌍에 건축주의 주택과 관리자의 주택, 그리고 수영장을 새로이 증축하는 것이었다. 대지는 좁고 긴 형태로 경사지를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의 진행은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 단계는 기존의 주택을 관리자의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으며, 2 단계는 그 위에 건축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3 단계가 수영장, 4 단계가 주변의 조경이었다.

新建築

199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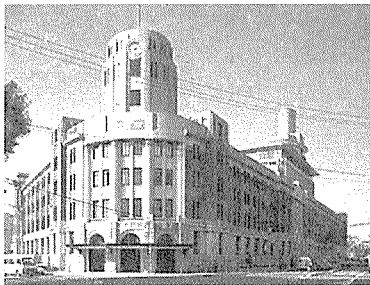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 소개는 니켄 세케이의 고베 세관 본관, 구로카와 키쇼의 쿠지시 문화 센터



(엠버 홀), 이시키 건축사무소의 와카바다이 초등학교와 이나기 중학교, 치바루 스키 등의 사이 마켓, 키쿠다케 키요노리의 시마네 현립 미술관, 네오 타이드 건축계획의 센다이 문학관, 마츠우나가 아스미츠의 나카지마 가든 등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이 게재되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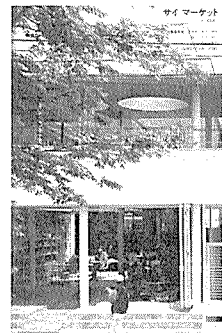
▶니켄 세케이의 고베 세관 본관: 구(舊) 고베 세관 건물은 1927년에 건립된 제세선 양식의 건물이었다. 공사중 관동 대지진이 준 영향으로 지진에 강한 설계로 수정을 한 후 지진에는 잘 견뎌왔다. 증축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보전하면서 거대한 건물군이 완성되었다. 증축된 부분에서도 기존 건물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V자로 깎여져 있던 기존의 건물에 이어 새로이 증정을 만들어 가며 증축하였다.



▶이시키 건축사무소의 와카바다이 초등학교와 이나기 중학교: 와타바다이 지구의 가로형성 계획에서는 학교를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보고, '컬처 코리도(Culture Corridor)' 라는 것을 두어 각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 코리도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였

다. 즉 각 시설의 경계부를 이 코리도가 지나가면서 그 경계부를 오픈시키고 각 절점에 시설의 입구를 두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학교는 이러한 계획 속에 설계되었으며, 학교시설의 배치도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나 계획되었다.

▶치바루 스키 등의 사이 마켓: 이 건물은 연극을 위한 스튜디오와 상점들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 가로면에 접한 쪽이 좁고 깊이 방향으로 긴 대지의 형태로 인하여 1층부의 중앙에 가로를 도입,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을 만들고 상부를 오픈하여 중정과 같은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에따라 2개의 점포와 레스토랑이 1층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네오 타이드 건축계획의 센다이 문학관: 센다이 문학관은 작은 계곡과 이를 따라 형성된 좁은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제법 큰 매스를 지닌 건물이다. 그러나 이 '다리'와 같은 이미지가 의도된 바이며, 교통의 인프라 스트럭처와 자연의 계곡을 건물에 유입·통합시키려는 시도이다. 도로와 계곡을 가로지르는 부분에는 하부의 도로와 계곡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오픈닝이 계획되어 있다.

▶마츠우나가 아스미츠의 나카지마 가든: 나카지마 가든은 집합주거이다.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에 '路地型 집합주거의 제안'이라는 테마를 붙였다. 이것은 2층으로 형성된 집합주거의 매스에 복도 대신 골목과 공중가로 형태의 동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주호는 전용 정원을 소유하며, 공공의 공간은 골목과 공중가로 형태의 공간이 된다. 이로서, 주택가에 들어선 집합주거이면서 기존의 단독 주택의 스케일을 건물의 매스들이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골목길의 형상을 중소규모의 단지에 도입함으로써 밀도의 유지와 함께, 친숙하면서도 정돈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